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의 현황 및 과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Developing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for Better Family Life Education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조교수 조혜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부교수 서지원*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o, Hyejin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eo, Jiw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재무교육의 의의와 가족생활교육의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무교육 활성화 방안 |
| III. 지역사회 재무교육의 현황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hasize the household financial education as a part of family life education, especially when provided at local community level; it also examines diverse measures by which to deliver such education. To this end,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education programs of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transmission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its operations was examined, and practical measures by which to stimulate the delivery of financial education within that center were derived. In more detail, previous studies inside and outside of Korea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education included in the area of family life education was assessed; as a result of these assessments, the definition and objectives of

* 교신저자: 서지원(jiwonseo@knou.ac.kr)

financial education as family life education were adjusted. The limits of financial education that has been delivered thus far were reviewed, with the aim of proposing measures by which to sufficiently stimulate the delivery of financial education programs-programs that ultimately reflect the healthy family philosophy.

This study proposes four specific measures by which to stimulate financial education. The first is the application of 'life cycle perspectives' to educational terms. The second is the activation of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that involve the family unit as educational subjects. Third, the delivery of lectures which related to the financing and nurturing of program coordinators was proposed. The fourth is drawing a conne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in terms of effectively applying teaching methods. Ultimat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nform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al stages of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within family life education, which can be performed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the future.

Key Words : 재무교육(financial education),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건강가정 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교육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노년부양비를 상승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결국 복지 재정을 악화시키고 개별가계의 부양부담 수준을 높이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만연한 청년실업 문제 역시, 가족형성 자체를 지연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가계부채 증가추세로 인한 재무건전성 약화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6년 3분기말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는 약 1295.8조원에 이르러 전분기말 대비 36.2조원이 증가하고 있으며(한국은행, 2016.11.24), 가계부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과잉대출에 따른 파산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정책 등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에도, 단

기간에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실천주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느 특정 세대에만 한정되지 않은 가계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즉, 청년실업, 가계부채, 조기은퇴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가계가 스스로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재무적 역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주요과제의 하나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하면, 그 방안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과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재무교육은 재무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개별가계가 스스로 재정적 위치를 판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하며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재무교육의 목표는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하여 더 나은 재무적 기회와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산출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복지(economic well-being)를 실현하는 데 있다(Clancy · Grinstein-Weiss & Schreiner, 2001; 계선자, 2000; 안창희 · 정순희 2006). 재무교육은 재무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재무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면 중장년기는 물론, 청소년기와 노년기에 걸쳐 긍정적인 재무적 성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재무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합한 재무교육은 가계재무 안정성과 복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은퇴설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졌거나 그로 인해 심각한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요 예방적 대안으로 가계재무교육의 체계적 시행이 제안되었다(박창제, 2014; 서지원, 2012; 성영애, 2012).

이러한 재무교육을 통해 재무건전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생애주기에 맞게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재무관리를 위한 가족구성원 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채널의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교육이나 이후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과 더불어, 공공성과 책임성뿐 아니라 유연성까지 갖춘 교육의 주체로서 지역사회가 지니는 의의는 간과될 수 없다. 가족단위의 재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재무교육 전달체계

의 다양화가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교육에서 재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 이래 지역사회의 가족생활교육의 대표적인 전달체계로 실천 현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중 재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생활교육으로서 재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의 의의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무교육의 한계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의 이념을 충분히 반영한 재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교육에 있어서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단계와 운영단계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재무교육의 의의와 가족생활교육의 현황

1. 재무교육의 개념과 의의

재무교육은 재무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재무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교육의 목표는 중장기적 재무목표의 달성과 단기적 재무문제의 해결능력 향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재무교육은 재무적 향상과 재무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관리교육을 의

미하므로 재무설계 및 상담을 포괄하는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 또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성영애 외, 2006).

최근 들어 개인을 단위로 접근하는 재무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는 재무자원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가계재무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재무교육과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계재무설계(household financial planning)는 미래에 대한 설계 또는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무목표를 달성하여 재정적 만족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개인을 포함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재무관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재무설계는 개인과 가계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자원은 물론 비재무적 자원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재무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성영애 외 2006; 조혜진 외 2015). 이와 같이 재무설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삶 전체에 기반을 둔 재무목표의 설정에서 시작하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가계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된다. 또한 재무교육과 유사한 개념의 금융소비자교육은 평생에 걸쳐 재무적 안정을 유지하고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으로서의 재무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재무교육이 실제로 개인의 재무역량을 강화하여 재무관리행동을 향상시키는지를 검증한 다양한 재무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직장 재무교육 참여의 효과에 대한 연구(Garman et al., 1999)의 연구에서 교육참여자의 75%는 재무의사결정을 더 잘 수행하고 투자결정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70%의 교육참여자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선정하는 등 재

무행동에 변화를 보였다. 한편, 재무교육은 투자목표 조정, 투자계획 구성, 청구서 지불 계획, 비상자금 마련 및 추가준비.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필요자금 계산, 은퇴준비금 증액, 신용카드 잔고 액수 감액, 은퇴준비자금을 포함한 자산배분의 조정 등 실질적 재무행동에 긍정적인 변화에 가져왔다(Berheim & Garrett 1996). 이러한 재무교육의 효과는 주택구입 이전 상담 경험이 연체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에서도 나타났다(Hirad & Zorn 2001).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과 자산리모델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Rand 2004)에 따르면 빈곤계층과 공적부조수혜자 대상 재무교육 시행 후 71~80%의 참가자가 재무교육 이후 긍정적인 재무행동의 변화를 보였으며, 지출관리 기술, 가계예산 수립, 신용카드 부채관리, 정기저축의 증가 및 저축계좌 개설, 대출금 상환, 은퇴준비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Bernheim과 Garrett(2003)의 연구에서는 근로자 대상으로 제공된 직장 재무교육이 저축, 연금저축,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저축률이 낮은 집단에서 재무설계의 재조정을 촉진하였다. 계층별 자산축적효과 분석에서도 하위 25% 계층에서 재무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대상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Bernheim, Garrett & Maki 2001)에서는 고등학생 당시 재무교육 참여여부가 성인이 된 이후 재무의사결정, 재무교육경험, 저축, 순자산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재무교육의 의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교육이 성인 또는 중산층 이상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기, 저소득층 등에도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또는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에서도 재무교육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포

함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학교교육에서 이론교육에 치우치거나 교육시간이나 활동의 측면에서 불충분한 청소년 재무교육의 보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2. 가족생활교육의 주요 시행 영역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시켜 가족 및 가족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활동으로 정의되며(옥선화, 1997; 이정연, 1998; 정현숙, 2007), 다학제적 특성을 지닌다. 김보미와 정현숙(2007)은 가족생활교육을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해지는 예방적이고 평생교육적인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미국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학자들(Arcus, Schvaneveldt, & Moss 1993; Guerney & Maxson, 1990)은 가족생활교육이 가족의 조화와 기능개선을 촉진시키고 가족원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복진수준을 향상·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수행, 평가, 교육, 훈련, 조사를 포함하는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생활교육이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생애에 걸친 예방적, 교육적인 활동 전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족생활교육의 형성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NCFR(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의 가족생활교육 내용을 보면 연령대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영역을 사회속의 가족, 가족내적 역동, 인간 성장과 발달, 인간의 성, 대인관계, 가족자원관리, 부모교육과 지도, 가족법과 정책, 윤리의 9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은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및 기타 연구소를 통하여 가족생활에 필요한 이론, 지식, 기

술, 상담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형태의 강좌가 실시되고 있으며, 교회와 성당, 사찰에서 종교적 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정현숙 1998; 서수경 2001; 이수희 2005; 김보미·정현숙 2007; 왕석순 2009)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영역을 개인성장교육, 성교육, 가족자원관리교육, 가족법교육, 은퇴·노후준비교육,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으로 분류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첨가하여 한부모/이혼가족교육, 장애가족교육, 알코올 가족교육, 새터민가족교육, 입양가족교육, 결혼이민자가족교육 등으로 분류하였다. 즉 현재 가족생활교육은 내용면에서 크게는 가족생활의 전반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는 가족원 개인의 성장 및 관계정립과 관련된 내용과 가족자원관리, 은퇴 및 결혼준비 교육, 부모/부부/자녀 등 가족교육, 법과 정책 및 윤리 및 특수가족교육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교육시설 및 종교단체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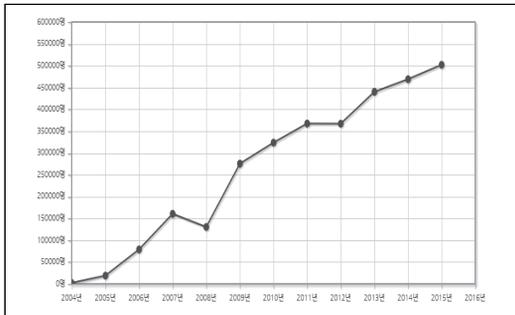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지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래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족생활교육의 핵심적인 전달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생애주기별 교육과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교육프로그램의 성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가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교육에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가족생활교육, 가족의사소통교육, 자

녀대상교육 등이 포함되며, 모든 유형의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표준 교육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연간 참여인원은 2004년 2,283명에서 시작하여 2015년 현재 502,112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05배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주요사업/가족교육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edu.do)

<그림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연간 참여인원

전체 가족교육사업은 대상에 따라 2015년 현재 생애주기별 부모(조부모) 교육과 남성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부모(조부모) 교육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부모, 부부, 조부모 등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표 1>과 같이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5.75배 증가하였고, 참여인원도 1.0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교육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프로그램 중에서 세부적으로 자녀교육과 기타교육의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사업의 프로그램별 실적 (2014~2015)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실시회기	
	2014	2015	2014	2015
남성교육	62,724	72,575	2,015	11,145
부모교육	93,244	104,169	3,316	16,916
가족교육	59,284	51,624	2,216	7,405
자녀교육	91,041	101,449	1,726	14,204
기타교육	162,745	165,315	3,285	22,545
합계	469,038	502,112	12,558	72,215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주요사업/가족교육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edu.do)

2)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에서는 결혼 이후 출산, 육아, 아이의 성장 등 자녀발달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자녀기(중장년기), 자녀를 출가시킨 노년기, 배우자 사망기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생애주기 단계에 맞게 예측가능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두고나 교제 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초기의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대화나 상호작용, 진로 등 부모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며, 중년기 부모교육은 중장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지식,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 만한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노년기 부모교육은 죽음준비, 건강, 현명한 소비지출 등 노년기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015년 한 해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총 16,916회에 달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육 참여인원은 총 104,169명에 이르렀다. 전년도인 2014년의 프로그램 운영 횟수 3,316회와 참여인원 총 93,244명과 비교할 때, 운영 횟수는 1년

동안 약 5배가 넘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참여인원 증가율은 1.1배 밖에 되지 않아 대외적인 규모가 더 성장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신혼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141명에서 2015년 201명으로 약 1.4배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생애주기 중 예비·신혼기 부부 대상의 교육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건강가정지원센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2015)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실시회기
예비 부모교육	24,464	2,685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	19,814	2,817
초등저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26,134	5,044
청소년기 자녀(중년기) 부모교육	13,642	3,126
성인기 자녀(노년기) 부모교육	10,912	2,069
조부모교육	9,203	1,175
총계	104,169	16,916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주요사업/가족교육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life_edu_pre.do)

이와 유사하게 가족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가족교육과 자녀교육으로 분류되며,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대상별 하위영역을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가족으로 구분하여 총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3>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운영실적 (2014~2015)

구분	세부 분류	2014		2015	
		참여 인원	진행 회기	참여 인원	진행 회기
가족	신혼기 가족교육	8,749	353	2,573	126
	중년기 가족교육	22,384	937	16,105	806
	노년기 가족교육	28,151	926	32,926	1,085
	계	59,284	2,216	51,604	2,017
자녀	자녀대상교육	91,041	1,726	101,449	2,291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주요사업/가족교육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growth.do)

3) 가족성장아카데미

가족성장아카데미는 가족단위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을 반영한 하나의 상징적인 브랜드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며,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총망라하여 가정생활의 운영을 위한 방향과 가정의 사회적 역할까지 포괄하는 개론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다. 가족성장아카데미의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이 11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부모코칭, 의식주관리, 시간관리, 일·가정 양립, 자원봉사 및 가족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남성대상교육프로그램이 자녀돌봄과 연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해 아버지역할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버지 행복한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III. 지역사회 재무교육의 현황

1.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가계재무교육프로그램의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은 부모교육과 부모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점차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이 복잡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영역 중 가정생활의 물적 기반과 관련된 재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 재무교육은 편제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계재무영역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표 4〉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 사례

회기	프로그램 제목	주제
1회기	몸매 가꾸듯, 가정도 가꾸어요	건강가정과 가족구성원 공통의 사명
2회기	부부행복지수 높이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특성 이해 부부갈등에 정확한 지식과 건강한 해결방안
3회기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을 위하여	자녀의 발달과정의 이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눈높이 교육 부모-자녀의 성격유형의 차이 이해
4회기	부모코치 되기!	부모코칭의 개념의 이해
5회기	부모코칭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부모코칭의 핵심기술(경청, 질문, 인정, 칭찬하기)의 학습 코칭기술의 실습, 부모코칭 능력 향상
6회기	우리 가족문화, 현명한 의식주 소비생활	가족생활주기별 의식주 관리 의식주활동을 통해 가족문화 만들기
7회기	나는 내 생활의 CEO, 시간, 여가자원관리	가족단위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관리 방법 나와 가족의 재무와 소비관리
8회기	다양한 가족, 당당한 삶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편견의 해소 편견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9회기	일과 가정, 둘 다 소중해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가족생활 특성의 이해 일-가정 불균형의 원인과 증상의 탐색 일-가정 균형 잡기 전략과 실천
10회기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 가족자원봉사	가족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이론 가족자원봉사 효과 및 과정의 이해와 구체화
11회기	우리가정, 건강한가? 컨설팅해 봐요	우리가정의 건강성 진단, 가정운영상의 강점과 약점 인식 가정의 역량강화방안 컨설팅 가정경영자의 역할 이해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주요사업/ 가족교육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edu/family_growth.do)

연계가 긴밀하지 않으며, 세대별 교육에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및 창업교육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실제 운영 현황을 볼 때 가족생활교육 내에서 재무교육은 장기적 프로그램 기획 하에 질적, 양적인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은 가족 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지원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재무교육이 가족교육 이외에도 모든 다른 영역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가족관계와 심리적 영역에 편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의 이념은 가족의 강점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며(유계숙, 2004), 이를 위해 개별가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교육 중 예비·신혼기 부모교육 등에 집중되어 운영되었으며(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노후준비 영역에서 경제적, 심리적 은퇴준비 등 재무교육내용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짧은 회기로만 구성되어 있어 노후·은퇴와 관련된 재무생활실계의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자원은 인적자원, 시간자원과 함께 가정생

활을 영위함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며, 재무자원의 관리는 가족자원관리의 주요 하위영역임을 인식할 때, 가족교육 영역에서 재무교육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또는 가족교육에서도 가족관계나 심리적 만족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무자원관리 및 재무적 만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정지영·정영금·조성은, 2007)에서도 통합적 교육모형에서 관리적 하위체계, 즉 의식주생활관리, 가족자원관리(시간, 금전)와 기타생활(여가, 가사노동, 소비자교육 등)을 따로 분류하고 재무관리교육과 소비자, 자원관리교육을 하나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확대단계에서 교육내용의 구성에 재무자원을 포함한 물적 자원의 관리영역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정관리에서 가계재무관리 영역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함에도 정서적, 심리적 가족관계에 비해 간과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정생활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가족성장아카데미’ 교육내용에서도 재무교육 내용이 포함된 회기는 전체 11회기 가운데 1회기에 그쳤다(<표 4> 참조). 구체적으로, 현재 가족성장아카데미의 7회기에 ‘나는 내 생활의 CEO: 시간, 여가자원관리’라는 주제의 교육 회기에서 시간관리와 더불어, 가계재무 및 소비에 대한 교육주제가 포함되었으나, 실제로 교육은 시간관리 내용에 국한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브랜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정영금 외(2009)의 연구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부부교육과 부모자녀교육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자원관리 교육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은 현 시점에도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사회 재무교육의 필요성

재무교육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가정이라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장하여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비영리기관은 교육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시행이라는 점에서도 용이하다.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무교육콘텐츠와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과 시장논리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공책임성을 갖추고 재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미 학교교육이나 정부주도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인 내용이나 주제 측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나 시장과는 다른 ‘제3섹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갖추어 왔으며, 이와 같은 교육인프라는 향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차원의 재무교육의 시행주체로서도 중요한 강점이 된다.

IV. 결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무교육 활성화 방안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재무자원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가계의 재무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건강가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다만, 가계에서 한정된 재무자원을 사용하여 생애전반에 걸쳐 경제적 복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재무과제가 됨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점점 재무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무정보는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개별가계의 재무관리에 있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개인이나 가계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820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7)를 보면, 16개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OECD에서 정한 최소목표치에는 약간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을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지식이나 금융행위는 평균보다 점수가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금융태도에서 약간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에서도 금융이해력의 모든 측정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연령별 분석결과는 학교교육 이후의 평생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비영리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재무적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가계로 하여금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개인은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개별가족의 잠재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정건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이끄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이 크다. 지난 10여 년간의 건강가정사업의 시행 추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간과된 재무교육의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재무교육을 다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영역과 통합·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관점, 교육의 대상, 교육의 주체, 교수진, 교수법 등의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무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의 관점: 생애주기적 관점의 체계적 적용

생애주기적 관점은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재무교육이 주는 편익을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함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실용적이다. 우선 개별 가계에서 재무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재무적 성장성만이 아닌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함에 있어 생애주기적 관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재무프로그램의 목표에 적절히 부합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재무설계를 지원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노부모 또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나친 재무적 의존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가계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가 야기할 결과를 예측하

도록 함으로써 재무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재무역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여 가능한 지출을 조정하고 작은 재무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경감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감을 얻는 성취를 얻게 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채무 또는 파산과 같은 재무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동원 가능한 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가족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신속하게 재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재무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재무 위기가 가족갈등이나 가족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무교육은 단순히 개인투자자 또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교육과 달리 일반 가족원이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무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재무관리 태도를 교육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재무목표의 가

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가족원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 논리나 자본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재무적 태도를 지양하고 가정생활을 이루는 가족돌봄, 가족여가와 문화, 양성평등,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과 같은 건강가정의 이념과의 연계가 가능한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생애주기별 교육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금융교육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5). 이때, 생애주기는 ①미혼기→②신혼기→③ 자녀출산 및 양육기→④ 자녀학령기→⑤ 자녀성년기→⑥ 자녀독립 및 은퇴기의 6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중요한 생활사건(live event)을 고려한 13개의 재무목표와 가계재무목표 중심의 31개의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 5> 참조).

<표 5> 금융감독원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기준

생애주기	생활사건	재무목표	금융교육 성취기준
I 미혼기	1. 대학진학 2. 부모로부터의 독립 3. 취업준비 및 취업 4. 자동차 구입	경제적 독립 준비	1. 학자금,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대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소득창출 활동(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다. 3. 자동차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4. 장·단기 재무목표와 관련한 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혼준비	5. 결혼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II 신혼기	5. 결혼 6. 주택마련	새로운 경제생활에 적용	1. 새로운 배우자와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장·단기 재무목표 및 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자신과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주택자금 마련	3.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표 5〉 계속

생애주기	생활사건	재무목표	금융교육 성취기준
III 자녀출산 및 양육기	7. 자녀출산 및 양육 8. 주택마련	자녀출산 자금 준비	1. 자녀출산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자녀출산에 필요한 자금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대안평가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원과의 경제생활에 적응	3.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 필요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4. 자녀양육이 포함된 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주택자금 마련	6.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대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IV 자녀 학령기	9. 자녀 사교육비 10. 자녀대학등록금 준비 11. 주택마련 또는 확장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1.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서 부부의 은퇴자금을 고려한 장·단기 재무목표 및 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자녀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주택구입 또는 확장 자금마련	3. 주택구입 또는 확장 자금마련을 위해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대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무계획을 수립·실천한다. 4. 주택구입 또는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V 자녀 성년기	12. 자녀의 대학진학 13. 자녀결혼 14. 조기퇴직	은퇴준비	1.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장·단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은퇴자금 마련(퇴직금 운용)을 위한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안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은퇴를 위한 부채관리를 할 수 있다. 4. 실직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는 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5. 창업, 재취업 등 소득의 재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자녀독립 (결혼준비)	6.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VI 자녀독립 및 은퇴기	15. 은퇴 16. 가족원의 죽음 17. 건강관리	은퇴생활 영위	1. 은퇴로 인한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는 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은퇴 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죽음이나 질병 등을 대비한 재무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4. 건강관리 관련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5. 은퇴 후 경제생활을 위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국가적, 사회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속준비	6. 자산 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2015). 생애주기별 금융생활가이드북

생애주기 단계별로 원활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프로그램 또는 가족교육을 실시하는 체계와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기준에서 너무 지엽적이고,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내용을 제외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생애주기별 가족교육프로그램의 단계에 맞추어 재정립한 생애주기별 가계재무교육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표 6> 참조).

이 때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는 ① 청년·미혼기 → ② 신혼기 → ③ 자녀출산 및 양육기 → ④ 자녀학령기 → ⑤ 자녀독립기 → ⑥ 은퇴기의 6단계로 구성하였고, 각 단계의 경제생활에 맞추어 14개 재무목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25개의 재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족성장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으로 직접적인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생애주기별 가계재무교육 기준(안)

생애주기	생애사건	재무목표	재무교육 가이드라인
I 청년·미혼기	1. 진로결정 2. 부모로부터의 독립 3. 결혼준비	미혼기 재무계획 수립	1. 본인의 학자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필요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때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대출 및 상환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장·단기 재무목표와 관련한 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경제적 독립	3. 소득창출 활동(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취업 또는 창업 상황에 적합한 재무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결혼준비	4. 결혼자금의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II 신혼기	4. 결혼 5. 주택(주거) 마련 6. 자동차 및 내구재 구입	신혼기 재무계획수립	1. 배우자와의 공동경제생활을 바탕으로 재무관리 계획과 장·단기 재무목표를 새로이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주택(주거) 자금 마련	2. 부부가 원하는 주거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합리적 구매의사결정	3. 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 시 부부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III 자녀출산 및 양육기	7. 자녀출산 및 양육 8. 주택마련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재무계획 수립	1. 자녀출산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자녀출산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주택자금 마련 및 상환	5.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6.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대출계약 이행 및 상환관리를 할 수 있다.

〈표 6〉 계속

생애주기	생애사건	재무목표	재무교육 가이드라인
IV 자녀 학령기	9. 자녀 교육자금 마련 10. 주택마련 또는 확장	자녀 교육자금 마련	1.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중·단기 재무목표 및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자녀 교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주택구입 또는 확장 자금마련	3. 주택구입 또는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한 재무계획을 수립·실천한다. 4. 주택구입 또는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V 자녀 독립기	11. 자녀진학 12. 자녀결혼	은퇴자금준비	1.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창업, 재취업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상황의 변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자녀 결혼자금 마련	4.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중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VI 은퇴기	13. 은퇴 14. 건강관리 15. 위험관리 16. 상속	은퇴기 재무계획수립	1. 은퇴 후 소비지출을 포함한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3. 은퇴 후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관련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상속준비	4. 자산이전 및 상속 등 죽음 이후를 대비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교육의 대상: 가족단위 재무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재무교육 역시 인간발달 및 가족발달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가족생애주기의 여러 단계에서 가족단위로 시행하였을 때 교육의 효과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인간발달의 단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기 재무교육은 향후 건전한 가정경제인으로 성장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실제로 올바른 재무생활의 습관화를 통해 생애전체의 재무관리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금융문제를 상의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OECD(2005)의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경험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재무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의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가족을 하나의 교육대상 단위로 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재무태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의 재무적 관

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적 재무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국 재무만족도와 더불어 가족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가정건강성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인기를 앞둔 대학생이나 직장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의 성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은 이 시기가 재정적인 종속관계에서 독립적 경제주체로 이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기 이후 재무지식, 재무관리행동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현재와 미래의 재무생활과 재무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은영·배미경·이승신, 2004; 최현자·조혜진, 2011).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 역시 본격적인 사회에 진출 이후 독립적인 재무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올바른 재무의사결정과 재무행동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의 가족을 형성한 이후 전생애주기에 걸쳐 바람직한 경제생활과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의 주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현재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은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지식의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지만, 금융상품의 홍보 및 판매 전략으로 교육을 수단화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재무교육의 주요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어 온 금융권 주도의 교육과는 공공성이나 책임성의 차원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무교육의 시행주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의 주체가 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

보제공, 상담, 투자로 이어지는 영리적 이익의 추구하는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무관리의 목표를 가족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대안적 재무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장점도 지닌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교육의 주체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등 가족자원이 취약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여 왔으므로,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특수한 재무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재무문제,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재무문제, 탈북 이후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요구되는 일상적 재무지식 뿐 아니라 재무적 전환과정 전반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접근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시행의 중립적이고도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관련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재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예산과 인력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교수진: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확보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무교육을 위한 교수진의 자격요건으로는 전문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재무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금융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겠다. 현재 금융감독원, 정부기관 및 서울시 등 지자체, 각 금융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재무설계 강사진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재무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생애주기별 재무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무교육협력기관으로 삼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유한 이념에 충실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재무교육 강사진 인력풀(pool)이 충분히 확보되어 공급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이전단계에는 외부단체와의 협약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시행을 앞당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외부기관의 재무교육 강사진이 건강가정 이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재무교육내용의 면밀한 검토, 강사진 선발을 위한 면접 등 다양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칭)재무교육 강사인증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건강가정재무교육 강사진을 양성하는 교육아카데미를 상설 운영하여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할 가계재무교육 전문 강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의 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과정으로 제공되는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도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무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생활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보고, 그 밖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차별화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정기간 동안 목표액을 마련하는 데에만 초점을 둔 재무교육이 아니라, 가족생애주기 내내 가족생활을 이루는 물질 기반을 구축하여 가족원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 목표를 가족생활의 관점에서 수립, 점검·조정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가족재무생활의 가치와 태도, 윤리 등의 차원에서 교육내용의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은 금융기관이나 회사나 경제부처의 금융교육과는 차별화된 재무목표와 전략 즉, 개별 가계의 복지증진과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닌 전문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적인 가족생활교육의 지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러한 관점에서 재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인력을 갖추으로써 지역사회의 가족들이 가정건강성의 관점에서 가계경제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무교육 이외의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영역, 즉 가족상담, 가족여가문화 등과 재무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투입할 필요성이 높다. 이는 건강가정이 지향하는 가치인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교육과 결합한 다양한 영역의 생활교육이 여러 트랙(track)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교육수요를 만들어내고 운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점 세분화되어가는 고등교육 전공커리큘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교육과 재무교육은 함께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풀이 뚜렷이 구분되어 연계성이 낮아 프로그램의 통합의 제한으로 인해 연계교육이 실천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가정사는 어느 특정 영역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가정생활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것을 지향하므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건강가정사 자격이수 요건에서도 장기적으로 재무교육 또는 컨설팅, 코디네이션 과정 등이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의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의 구성과는 차별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재무분야에 특화된 ‘(가칭) 재무전문 건강가정사’ 자격과정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향후 전반적인 건강가정사 자격증 제도의 정비에 있어 통합성과 전문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에 급수를 두어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최근 민간 또는 국가자격증의 전문화를 위한 검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칭) 일반건강가정사’ 자격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학부에서 수료한 후, 대학원에서는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생활교육의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강가정사 자격과정에서 통합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양성과정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을 위한 공감대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수법의 확장: 온-오프라인 교육의 연계

재무교육프로그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법과 도구를 적용하되, 강의실 교육 위주의 운영에서 온라인 교육을 접목하여 강의실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교육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지역밀착형 오프라인 교육에 주력하여 왔으나, 향후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 온라인 방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IT 기반을 이용한 이러닝(e-learning)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차별화된 교수-학습 전략을 적용하되, 현장밀착형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도 살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교육표준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면식 금융교육 교재에서 탈피하여 온라인 기반의 금융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2. 13). 이처럼 교육콘텐츠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정형화된 교수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애재무설계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계기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잘 고안된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의 개인과 가계를 위한 재무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기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재무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 과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함과 더불어 건강가정사 재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등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무교육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정부주체가 할 수 없고, 또한 하지 않는 ‘가정건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목표 아래 재무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후 독자적 교육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확산을 가능케 하는 관리시스템의 복합적인 업무 흐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후속적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dex.jsp>).
- 2) 계선자(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2. 13). 중학생 금융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 23).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5) 금융감독원(2015).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 6) 김보미 · 정현숙(2007). 서울지역 가족생활교육 현장별 교육내용과 방법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85-312.
- 7) 박창제(2014). 베이비부머와 전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3, 309-336.
- 8) 백은영 · 배미경 · 이승신(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관리학회지, 42(8), 219-233.
- 9) 서수경(2001). 독일과 한국의 가족교육 비교 연구-사회정책적 차원, 한독교육학연구, 6(2), 1-25.
- 10)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fn_areacenter/).
- 11)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12) 성영애(2012).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분석, 소비자학연구, 23(2), 85-105.
- 13) 성영애 · 양세정 · 이희숙 · 차경옥 ·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및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21-39.
- 14) 안창희 · 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 15) 옥선화(1997). '가족생활교육' 교과과정 평가 및 개발: 미국대학 교과과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 29-50.
- 16) 왕석순(2009).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가족생활교육의 실태 분석, 실과교육연구, 15(2), 249-274.
- 17)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18) 이수희(2005).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과 적용-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113~129.
- 19) 이정연(1998). 유아기자녀를 둔 가족에서의 부모교육과 부모교육. 생활과학논집, 1, 27-35.
- 20) 정영금 · 강기정 · 박정윤 · 정지영 · 조성은(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83-98.
- 21) 정지영 · 정영금 · 조성은(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93-114.
- 22) 정현숙(1998).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가족향상프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0(4), 55-68.
- 23)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서울: 신정.
- 24) 조혜진 · 장연주 · 김민정 · 이지영 · 최현자(2015). 재무설계에 있어서 코칭(coaching)의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25) 최현자 · 조혜진(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2(4), 1-21.
- 2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main.php>).
- 27)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1. 24). 2016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 28)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 23). 2016 전국금융이해력조사 결과.
- 29) Arcus, M. E., Schvaneveldt, J. D., & Moss, J. J. (1993). The nature of family life education.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Foundations of family life education*, 1, 1-25.
- 30) Bernheim, B. D., & Garrett, D. M. (1996).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No. w566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31) Bernheim, B. D., & Garrett, D. M. (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 1487-1519.
- 32) Bernheim, B. D., Garrett, D. M., & Maki, D. M. (2001).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3), 435-465.
- 33) Clancy, M., Grinstein-Weiss, M., & Schreiner, M. (2001). Financial education and savings outcome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Working Paper 01-2. St. Louis, MO: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 34) Garman, E. T., Kim, J., Kratzer, C. Y., Brunson, B. H., & Joo, S. H. (1999).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improves personal financial wellnes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1), 79-88.
- 35) Guerney Jr, B., & Maxson, P. (1990). Marital and family enrichment research: A decade review and look ahe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27-1135.
- 36) Hira, A., & Zorn, P. M. (2001). A little knowledge is a good thing: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pre-purchase homeownership counseling.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 37) OECD(2005).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 38) Rand, D. (2004). Financial education and asset-building programs for welfare recipients and low-income workers: The Illinois experience.

- 투 고 일 : 2016년 12월 1일
- 심 사 일 : 2017년 1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21일